

# 2026년 지방선거, '공천 후 본선'이라는 낡은 공식은 끝났습니다.

## 공천 경쟁은 이미 시작된 전쟁입니다.



- 많은 후보자들이 공천 획득 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재의 공천 제도를 간과한 치명적인 전략적 오류입니다.
- 공천 심사의 핵심 지표인 '당내 지지율'과 '유권자 인지도'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공천 확보가 곧 선거 승리임을 증명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 공천 단계가 본선보다 중요한 이유: 선거 승리의 8할

# 80%



"공천 절차의 특성이 정당의 특성을 결정하며,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주인이다."

- 정치학자 E.E. 샷슈나이더 (E.E. Schattschneider)

- 거대 정당의 공천 확보는 '공식적인 정당 상품'으로서 본선 경쟁력의 80% 이상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 과거 선거는 당선 가능 인원만 공천하는 '카르텔형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자를 속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공천 승리가 곧 당선임을 증명합니다.
- 따라서 공천 경쟁은 단순히 후보 자격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상의 결승전입니다.

[2026.06.0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 1분기]  
주요 정당 공천 심사 및 경선

[현재 시점]  
**마지막 GOLDEN TIME**

당내 지지율 및 유권자 인지도  
확보를 위한 전략 실행 기간

**지금 이 바로 공천 경쟁력을 결정할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 공천 심사 직전의 활동은 이미 고착화된 인지도와 조직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 지금부터 공천 심사일까지의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공천 전쟁 (Pre-Nomination Warfare)**'이라 정의합니다.

# 공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두 핵심 변수: 당심(黨心)과 민심(民心)

공천 경선 규칙은 결국 '당심'과 '민심'을 어떤 비율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당심 (黨心)

**정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당내 조직력 및 충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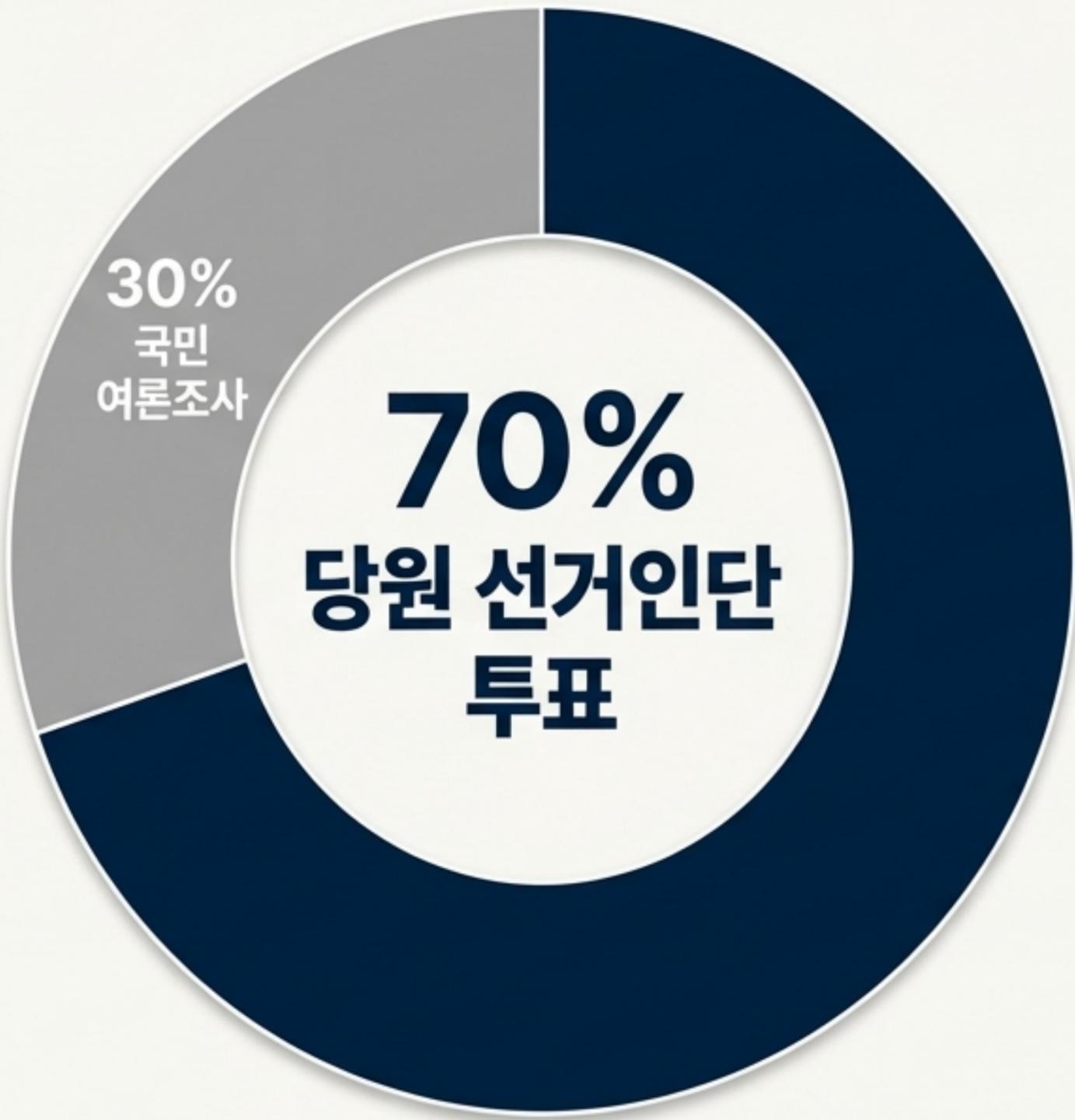
**측정 방식:** 권리당원 투표,  
당 기여도 정량평가



## 민심 (民心)

**정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유권자 인지도 및 호감도

**측정 방식:** 국민 여론조사  
(ARS, 전화면접 등)



## 국민의힘의 새로운 전장: ‘당심 70%’ 시대를 준비하라

- 국민의힘의 경선 규칙은 명확합니다: 중도층 확장력보다 **당내 충성도, 조직 기여도, 정당 활동의 정량적 실적**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본선이 아닌, 공천 확보가 최우선 목표인 후보자는 이 7:3 비율에 모든 전략을 맞춰야 합니다.

# 경선 판도를 뒤집는 유일한 변수: 정량 가산점

## 정량 가산점 시스템

-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 **+20%p**
- 만 35세~44세 청년 신인: **+15%p**
-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 **+10%p**

## GAME CHANGER

상황:



(접전 상황)

결과:



+

+20%p

**결론:** 가산점은 민심(30%)에서의 약점을 압도적으로 상쇄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후보자는 **가산점 획득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을 역설계**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이중 전선: 단계별 전략 없이는 필패한다



**민주당 후보는 두 개의 다른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1차 경선을 통과할 강한 당원 조직력과, 2차 경선에서 이길 중도 확장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가유공자(15%), 고위 정무직 신인(10%) 등 별도 가산점 제도 존재.

# 양당의 경선 규칙, 전략적 간극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분	국민의힘 (KNP)	더불어민주당 (DPK)
반영 비율	당심 70% : 민심 30%	당심 50% : 민심 50% (2차 경선 기준)
핵심 가산점	청년/여성 신인 (최대 20%p)	국가유공자/특정 공로 (최대 15%p)
핵심 전략	당내 조직력 및 충성도 극대화. 가산점 획득이 승패 직결.	1차 당원 투표 통과 후, 당심과 민심의 균형적 확보 필수.
주요 리스크	당심에 치우친 메시지가 본선에서 중도 확장성을 저해할 가능성.	1차(당심)와 2차(민심)를 위한 상충되는 메시지 관리의 어려움.

# 공천 전쟁 승리 전략: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장악하라

공천 신청서 제출 시점에, 당신은 이미 압도적인 경쟁력을 증명할 정량적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선제적 캠페인 전략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 전략 1: 당심 확보 전략 (The Inner Circle War)

- 목표: 당내 기여도 및 로열티를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
- 핵심: 핵심 당원 DB, 충성도 점수화, 중앙 정치 연계



## 전략 2: 민심 확보 전략 (The Public Square Ba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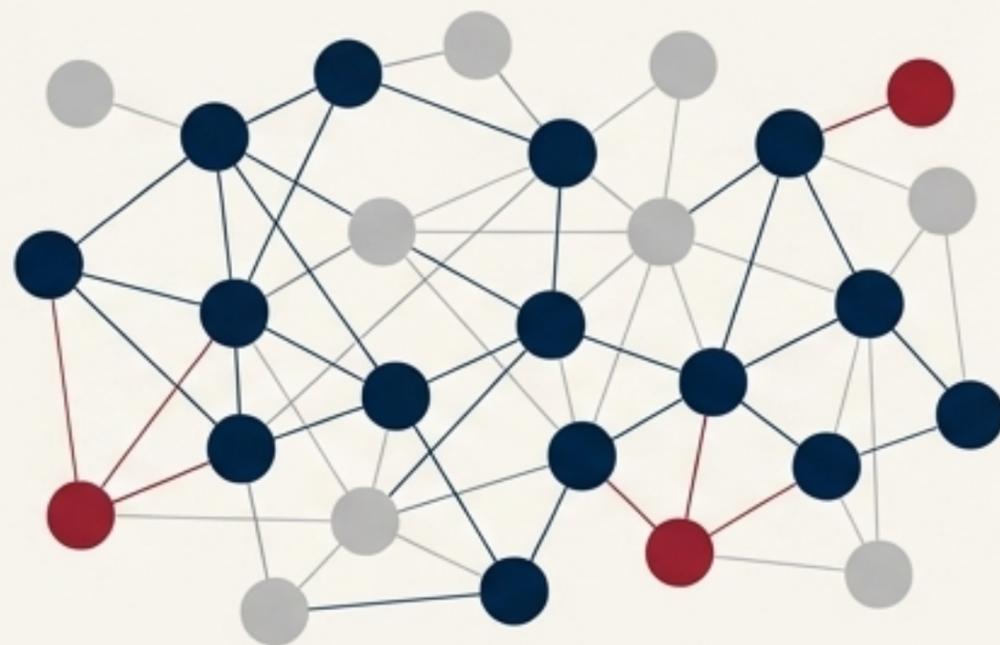
- 목표: '잠재적 유권자' 대상 인지도/호감도 선제적 구축
- 핵심: 정책 능력 입증, 선제적 여론조사 대비, 리스크 관리

# 당심 확보 전략: 충성도를 정량적 데이터로 증명하라

## 1. 핵심 당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충성도 점수화'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을 정밀 분류하고, 활동 빈도, 행사 참여율, 메시지 반응도 등을 분석하여 '충성도 점수'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핀포인트 타겟 그룹'(이탈 위험군, 미참여군)을 식별하고, 맞춤형 투표 독려 활동을 집중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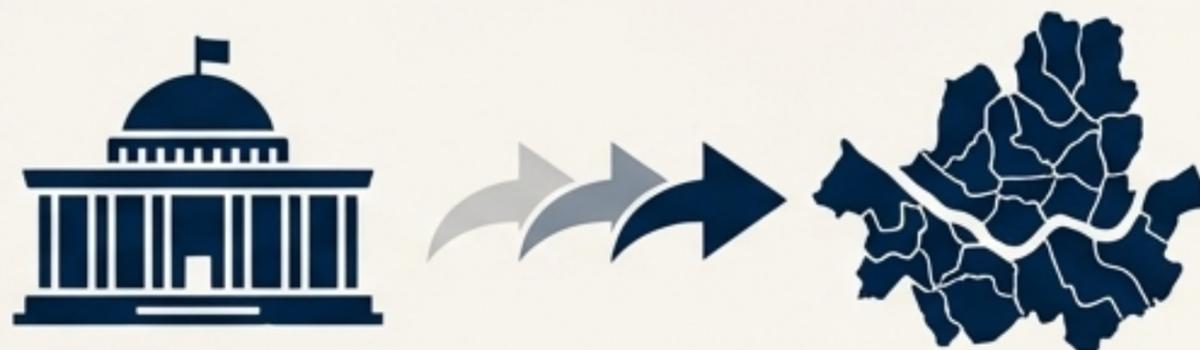


## 2. 중앙 정치와의 연계성으로 로열티 입증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의 대리전' 성격이 강합니다.  
(Source: Past election analysis)

단순 지역 숙원 사업 나열을 넘어, 소속 정당의 중앙 정부 정책을 지역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천 심사에서 '정책적 일관성'과 '로열티'를 동시에 증명하는 길입니다.



# 민심 확보 전략: 인지도와 정책 능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라

## 1. '정책적 틈새(Niche Policy)' 발굴 및 예비 공약 선점

최근 공천은 '능력주의'를 강조합니다. 지역 이슈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유권자가 원하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정책적 틈새'를 발굴하십시오.

공천 심사 이전에 '예비 공약' 형태로 발표하여 정책 개발 능력을 선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2. 선제적 여론조사 대비 및 '윤리적 리스크' 관리

공천 여론조사는 인지도를 '측정'할 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타겟 유권자 그룹 대상 인지도/호감도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민주당의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처럼, 정당별 '윤리적 컷오프' 리스크를 사전에 스크리닝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데이터 보험'이 필수적입니다.



# 이 복잡한 전쟁을 지휘할 '전략적 지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Problem'

당심 극대화와 민심 확장, 가산점 획득, 정책 개발, 리스크 관리...  
이 모든 변수를 인간의 감각과 경험만으로 관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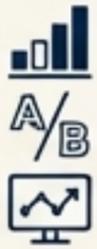
## 'Solution'

AI 선거 솔루션은 이 모든 것을 통합 관리하여  
승리 확률을 정량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지휘 시스템(Strategic Command System)**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후보자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로 전환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당신의 선거 캠프 '작전 상황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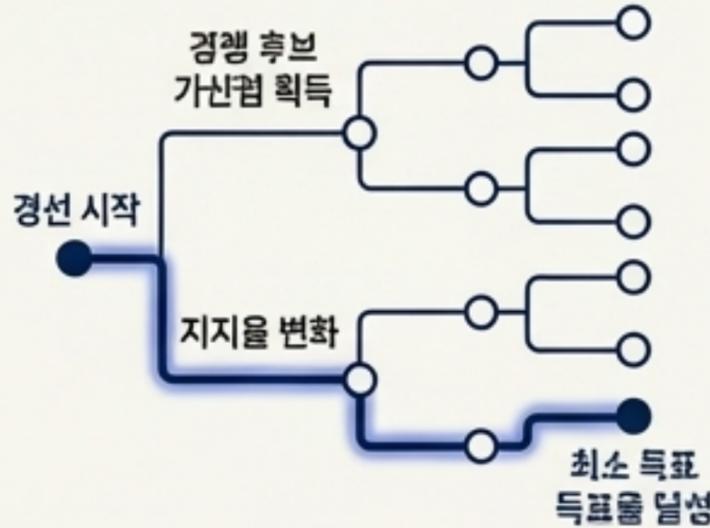
# AI 솔루션 활용 로드맵: 모든 공천 심사 항목을 데이터로 증명하라

공천 심사 요소 (Evaluation Criteria)	AI 솔루션 통합 전략 (AI Integrated Strategy)	기대 효과 (Expected Outcome)
당원 지지율 (당심)	 당원 활동 데이터 마이닝, 충성도 점수화, 이탈/미참여 당원 당원 자동 식별 및 핀포인트 메시징	당원 투표율 극대화 정량적 당 기여 데이터 축적 당내 조직력 우수 입증
국민 여론조사 (민심)	 타겟 유권자 세분화, A/B 테스트 기반 최적 메시지 발굴, 실시간 인지도/호감도 모니터링	여론조사 진입 인지도 사전 확보, 민심 점수 획득 부정 이슈 조기 대응
정치 신인/약자 가산점	 후보자 조건 분석을 통한 가산점(20%p 등) 획득 가능성 자동 진단 및 활동 로드맵 제시	가산점 획득 효과 극대화, 심사위원회를 위한 정량적 증빙 자료 준비
정책 개발 및 이슈 대응	 지역 민원 빅데이터 분석, 중앙당 정책 연계성 점수화, '정책적 틈새' 자동 발굴	'능력주의' 기반 정책적 자질 입증, 중앙당과의 정책 일관성 어필

# 단순 데이터 관리를 넘어, AI는 전략적 예측과 위기 관리를 수행합니다

## 경선 시나리오 모델링

경쟁 후보의 지지율, 예상 가산점 등을 통합 분석하여 공천 확보에 필요한 '최소 목표 득표율'을 정밀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상충되는 목표 관리

당심(충성도 메시지)과 민심(확장성 메시지)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타겟 그룹별로 최적화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전환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 경선 시나리오 모델링

경쟁 후보의 지지율, 예상 가산점 등을 통합 분석하여 공천 확보에 필요한 '최소 목표 득표율'을 정밀하게 제시합니다. 이는 자원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컷오프' 리스크 예측

후보자의 이력, 발언 등을 기반으로 공천 심사에서의 '윤리적 컷오프'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소명 자료 준비 등 선제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 2026년 지방선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천에서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과 선제적인 데이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는 비합리적인 공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후보의 공천 당위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데이터 기반 전략을 실행하여 2026년 공천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십시오.